

사이버 치과 진료 상담을 통해 살펴본 구강내과 질환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진단학 교실

김수범 · 정재용 · 김 철 · 김영준 · 박문수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점막 질환, 만성 신경병변성 통증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진료실에 게재된 질문들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치과 진료과별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구강내과 영역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전체 2000여 개의 질문 중 구강내과 진료에 대한 상담에 속하는 질문은 20.92%이었고, 구강악안면외과 진료에 속하는 질문이 16.87%, 치과보존과 16.67%, 치과교정과 14.02%, 치과보철과 12.25%, 치주과 8.36%, 소아치과 4.93%, 예방치과 2.08%, 기타 질문이 3.90%로 나타났다. 구강내과 진료에 대한 상담에 속하는 403개의 질문 중 구강점막 질환에 대한 질문이 44.17%, 측두하악장애에 관한 질문이 41.19%, 구취에 관한 질문이 4.47%, 구강 건조와 관련된 질문이 3.23%, 다른 구강안면 통증에 관련된 질문이 2.23%, 법치의학과 관련된 질문이 1.49%, 기타 질문이 2.98%로 나타났다.

구강내과 영역 질환에 대한 질문의 비율이 타과 진료 영역 질환과 관련된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구강점막 질환과 측두하악장애를 포함한 구강내과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사이버 진료실, 구강내과, 구강점막 질환, 측두하악장애

I. 서 론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구강내과는 구강안면 통증, 구강점막 질환, 법치의학, 구강병 진단을 다루는 전문과목으로서 치과 전문과목 중에서도 전문성이 매우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내과에서 다루어야 할 질환들이 대부분 심인성 질환으로,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

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점막 질환, 만성 신경병변성 통증 등의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는 정확한 지식 없이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 등 여러 병의원을 내원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불편감과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¹⁾ 따라서 이런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역학적 조사를 통해 구강내과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종류와 질환별 비중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에 대한 대중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의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현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들어 치과영역에서도 인

교신저자 : 박문수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진단학교실

전화: 033-640-2466

Fax: 033-640-6410

E-mail: mpark@kangnung.ac.kr

원고접수일: 2008-10-24

심사완료일: 2008-12-05

* 이 논문은 2008년도 강릉대학교치과병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터넷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들도 여러 웹사이트에서 치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다. 따라서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²⁾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교류는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싸며 이용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반복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다량의 정보에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그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³⁾

현재 국내 사이버 치과 진료 상담실은 홈페이지가 개설된 대부분의 치과의원과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치과대학병원 홈페이지에서는 11개 치과대학병원 중 본원을 포함한 7개 병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진료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개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의과대학병원과 통합되어 사이버 진료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하여 치과관련 협회나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사이버 진료상담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원에서의 사이버 진료상담실은 각 진료과목 별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루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에 사이버 진료상담실이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약 2000여 개의 질문이 게재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진료실에 게재된 질문들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치과 진료과별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구강내과 영역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진료 상담 코너에 게재된 1926개 질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각 질문들을 질문 내용과 관련된 질환이나 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 별로 분류하였다. 해당 진료과는 치과 임상진료과중 구강병리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제외한, 구강내과, 치과보존과, 소아치과, 치주과, 예방치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로 선정하였고, 질문 내용이 다수의 진료과로 중복되는 경우,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 내용과 관련된 진료과로 분류하였다. 직접적으로 진료와 관련되지 않은 예약 절차 등이나 할인 가능 여부 등에 관련된 질문은 기타로 분

류하였다.

질문들을 해당 진료과로 구분한 후에 구강내과 관련 질문들은 다시 해당 영역 별로 분류하였다. 해당 영역들로는 측두하악장애, 측두하악장애를 제외한 기타 구강안면 통증, 구강점막 관련 질환, 타액선 및 구강 건조와 관련된 질환, 구취 및 법치의학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질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추가로 구강점막 질환 관련 질문들을 해당 부위별, 예상되는 질환별로 분류하였는데, 해당 부위로는 혀, 구강저, 협점막, 치은, 구개, 구강점막 전체로 구분하였고, 해당 부위를 알 수 없거나 다른 나머지 부위에 관련된 질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환자의 질문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질환을 정상구조물, 아프타성 궤양, 외상성 궤양, 기타 질환(점액류종, 구강작열감 증후군, 칸디다증, 헤르페스감염, 모설, 평편태선 등), 진단명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실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과의 비교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각 진료과별 초진환자의 비율을 조사하였고, 그 중 구강내과 초진 환자들의 진단명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III. 결 과

사이버 진료실 질문들의 관련 진료과별 분류 결과는 구강내과 403건(20.92%), 구강악안면외과 325건

Table 1. Distribution of questions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진료과	Number(Percentage)
구강내과	403(20.92)
구강악안면외과	325(16.87)
치과보존과	321(16.67)
치과교정과	270(14.02)
치과보철과	236(12.25)
치주과	161(8.36)
소아치과	95(4.93)
예방치과	40(2.08)
기타	75(3.90)
Total	1926(100.00)

(16.87%), 치과보존과 321건(16.67%), 치과교정과 270건(14.02%), 치과보철과 236건(12.25%), 치주과 161건(8.36%), 소아치과 95건(4.93%), 예방치과 40건(2.08%), 기타 75건(3.90%)로 나타났다(Table 1).

사이버 진료실 질문들 중 구강내과 관련 질문들의 해당 영역별 분류 결과는 구강점막 질환 178건(44.17%), 측두하악장애 166건(41.19%), 구취 18건(4.47%), 구강건조 13건(3.23%), 기타 안면통증 9건(2.23%), 법치의학 6건(1.49%), 기타 12건(2.98%)로 나타났다(Table 2). 구강점막 질환 관련 질문들의 해당 부위별 분류 결과는 혀 70건(39.33%), 협점막 27건(15.17%), 전체 15건(8.43%), 치은 13건(7.30%) 구강저 10건(5.62%), 구개 10건(5.62%), 기타 33건(18.54%)로 나

타났고(Table 3), 예상 질환별 분류 결과는 예상불가능 77건(43.26%), 정상구조물 39건(21.91%), 외상성 궤양 20건(11.24%), 아프타성 궤양 16건(8.99%), 기타 26건(14.61%)로 나타났다(Table 4).

실제 내원한 환자들의 각 진료과별 초진환자 수의 비율은 치주과 21.30%, 치과보존과 20.53%, 구강악안면외과 15.32%, 소아치과 14.57%, 치과보철과 13.57%, 구강내과 5.77%, 치과교정과 5.59%, 예방치과 3.35%로 나타났으며(Table 5), 구강내과 환자의 해당 영역별 분류 비율은 측두하악장애 82.41%, 기타 안면통증 4.24%, 구강건조 3.11%, 구취 2.52%, 구강점막 질환 2.36%, 법치의학 1.13%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2. Distribution of questions related to oral medicine according to the diseases

해당 영역	Number(Percentage)
구강점막 질환	178(44.17)
측두하악장애	166(41.19)
구취	18(4.47)
구강건조	13(3.23)
기타 안면통증	9(2.23)
법치의학	6(1.49)
기타	12(2.98)
Total	403(100.00)

Table 3. Distribution of questions related to oral mucosal diseases according to the regions

부위	Number(Percentage)
혀	70(39.33)
협점막	27(15.17)
전체	15(8.43)
치은	13(7.30)
구개	10(5.62)
구강저	10(5.62)
기타	33(18.54)
Total	178(100.00)

Table 4. Distribution of questions related to oral mucosal disease according to the prospective diseases

예상 질환	Number(Percentage)
예상불가능	77(43.26)
정상구조물	39(21.91)
외상성 궤양	20(11.24)
아프타성 궤양	16(8.99)
기타	26(14.61)
Total	178(100.00)

Table 5. Distribution of patients visited in dental hospital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진료과	Percentage
치주과	21.30
치과보존과	20.53
구강악안면외과	15.32
소아치과	14.57
치과보철과	13.57
구강내과	5.77
치과교정과	5.59
예방치과	3.35
Total	100.00

Table 6. Distribution of patient visited in oral medicine according to the diseases

해당 영역	Percentage
측두하악장애	82.41
기타 안면통증	4.24
구강건조	3.11
구취	2.52
구강점막 질환	2.36
범치의학	1.13
Total	100.00

IV. 고 찰

사이버 상담은 미국에서 1980년대 이전부터 상담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료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던 진료상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정보사회에 가장 적합한 상담유형의 하나인 사이버 상담은 현재 한국의 상담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상담기관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나 정보제공 등의 부분적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집단 상담이나, 개인상담 및 편지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전문적인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는 상담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⁴⁾

국내 의료계에서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 사이트에서 다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담의 방향성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를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3,5-7)} 치과계에서도 학회 홈페이지의 진료상담 코너의 내용을 분석하여 분야별 분포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²⁾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구강내과 관련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진료상담 질문들을 이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사이버 질문들과 실제 내원한 환자들의 비율을 비교해보았다.

사이버 진료 상담의 질문들의 관련 진료과별 분류 결과 구강내과 관련 질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구강내과 관련 질환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실제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초진 환자들의 진료과별 비율에서는 구강내과 환자들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내과 관련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이 많이 부족함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구강내과 관련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 등 여러 병의원을 내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구강내과 관련 질문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또한, 사이버라는 가상의 공간과 현실과의 차이 역시 진료과별 분류시 사이버 상담 질문과 실제 내원환자 사이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상담의 특성으로 시, 공간의 초월성, 익명성, 정보의 개방성, 연결성 및 전파성, 선명성 및 극단성 등을 들 수 있다.⁸⁾ 특히, 시, 공간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요소가 적다는 측면은 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불편감이 없는 상태이거나 약간의 호기심만 있는 경우에서도 쉽게 진료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며, 사이버 진료실에 게재된 구강내과 관련 질문 비율이 실제 내원 환자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구강내과 관련 질문들의 해당 영역별 분류시 구강점막 질환과 관련된 질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내원한 구강내과환자에서 각 영역별 비율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구강점막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은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치료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들 중 대부분이 구강점막 질환과 관련된 질문들에서 많이 있었으며, 따라서 구강내과 영역 질환들 중 구강점막 질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일반인들에 있어서 비교적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구강점막 질환 관련 사이버 질문 중 혀 부위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부위보다 혀와 관련된 질문이 많은 이유로는 혀의 특징적 구조와 혀의 관찰이 용이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혀는 구강내 다른 점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두와 같은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구조 때문에 구강내 다른 점막들에

비해 개인 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혀와 관련된 질문들 중 정상 유두로 사료되는 질문들이 많았고 타인의 혀와 비교시 달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혀는 구강내 점막 중 가장 쉽게 관찰이 가능한 부위이고 직접 미각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게 생각될 수 있으므로 혀 관련 질문이 다른 부위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강점막 질환과 관련된 질문을 예상되는 질환 별로 분류시 예상 불가능한 질문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이는 사이버 상담 질문들의 분류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정보 이용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상담하고자 하는 건강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직접 대면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³⁾ 결국,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상태를 서술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일반인들이 질문시 참고 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예시로 보여주어 자신의 상태를 좀 더 상세히 설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 자료 분석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2005년 정¹⁾ 등의 내원경로 분석을 통한 전문과목으로서의 구강내과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내과에 의뢰된 환자의 비율은 전체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의 58.91%로 과반수를 넘는 환자들이 의뢰되었다고 한다. 이 결과 역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구강내과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질환에 대한 적절한 지식 및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정 등은 자의로 내원한 환자 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서 구강내과 전문분야에 대한 사전 검색 및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원한 환자들이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을 한 응답자가 56.60%인 반면, 매스미디어에 의한 정보검색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3.61%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강내과 관련 질환의 정보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하며,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사이버 상담 질문 중 구강내과 질환에 대한 질문의 비율이 치과내 다른 진료과들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구강점막 질환과 턱관절 장애를 포함한 구강내과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의 비율이 구강내과 관련 질문들의 비율 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아직 일반인들의 구강내과 질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들에게 구강내과라는 전문분야의 중요성과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정태용, 유지원, 강진규, 안형준, 최중훈. 내원경로 분석을 통한 전문과목으로서의 구강내과의 역할. 대한구강내과학회지 2005;30(4):391-400.
2. 오형준, 민윤경, 정태성, 김신. 대한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에 오른 진료상담 내용의 분석.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02;29(3):439-443.
3. 송경애, 백승인, 권은하. 일 병원 류마티스센터 홈페이지의 인터넷 상담내용 분석. 류마티스건강학회지 2003;10(1):54-61.
4. 장진경. 사이버 상담 활성화를 위한 탐색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2;20(4):135-148.
5. 류진우, 박종권, 정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유방 질환 상담내용 분석. 대한외과학회지 2000;58(3):319-322.
6. 이은옥, 이영숙. 인터넷을 이용한 관절염 환자의 건강상담 내용분석. 류마티스건강학회지 2000;7(1):40-52.
7. 송경애, 백승인, 조옥희. 인터넷을 이용한 루푸스 환자의 건강상담 내용분석. 류마티스건강학회지 2004;11(1):42-49.
8. 김윤희, 이향련, 강인애, 오윤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상담체계 모형구축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1). 정신간호학회지 2002;11(4):485-500.

- ABSTRACT -

Consideration for the Importance of Diseases Associated with Oral Medicine by Analyzing
the Dental Cyber Consultation

Su-Beom Kim, D.D.S.,M.S.D., Jae-Yong Jeong, D.D.S.,M.S.D., Cheul Kim, D.D.S.,M.S.D.,
Young-Jun Kim, D.D.S.,M.S.D., Moon-Soo Park,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 Diagnosis, College of Dentistry,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he moderners of industrial society suffer from various stresses, which bring about increase in preval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oral mucosal disease and chronic neuropathic pain, therefore, the number of patients seeking help of those symptoms tend to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oral medicine related disease by investigating questions that appeared in cyber consultation of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web site.

Among the nearly 2000 questions, the rate of questions related to oral medicine was 20.92%, and the rate of questions related to other departments were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16.87%, conservative dentistry 16.67%, orthodontics 14.02%, prosthodontics 12.25%, periodontics 8.36%, pediatric dentistry 4.93%, preventive dentistry 2.08% and otherwise questions 3.90%. Among the 403 questions related to oral medicine, the frequent questions were oral mucosal diseases 44.17%, temporomandibular disorders 41.19%, halitosis 4.47%, xerostomia 3.23%, other orofacial pain 2.23%, forensic dentistry 1.49% and otherwise questions 2.98%.

From the higher rate of questions related to oral medicine compared with other fields of dentistry, we would consider that the people are considerably concerned about the oral medicine related disease, such as oral mucosal diseases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Key Words: Cyber consultation, Oral medicine, Oral mucosal disease, Temporomandibular disorder
